

전국체전 특수 노린다

순창군, 정구종목 개최 앞서 중고교 대회도 열여

순창군이 오는 10월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정구종목을 개최키로 하면서 전국체전 특수를 누리고 있다.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 등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47개종목 2만4942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순창군에서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창공설운동장 내 실내코트와 하드코트에서 정구대회가 열린다.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실업)로 나뉘어 열리는 정구대회에는 선수단과 임원 등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정구종목 각종 대회도 치러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2018 전국대학 정구추계연맹전 대회를 끝냈으며,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국중고등학



순창군이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정구종목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순창군에 위치한 정구장.

고 정구 추계 연맹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추계 연맹전은 역대대회 중 가장 많은 48개팀이 출전해 전국체육대회 전초전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중, 고, 일반부(실업)대회가 열린 것은 순창군의 치밀한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군은 3개 대회를 마치고 전국체육대회 전지훈련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일반(실업)팀은 대회 후 바로 전국체육대회 전지훈련에 돌입하고, 고등부, 대학부도 추석연휴 기간부터 진행하게 될 훈련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주요 현장방문 행정속도 높여

이환주 남원시장이 5일과 6일 이틀 동안 남원예촌 조성사업 등 13개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속도는 현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안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선7기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먼저 남원예촌 4.5지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광한루를 중심으로 금암공원과 한파우예술촌까지 이어지는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대상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안과 사업의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더 머무르고 더 소비할 수 있는 남원관광벨트를 완성해 시민들이 관광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앞두고 준공한 톨라하기장을 점검하며 선수들에게 시설의 장단점을 묻기도 했으며, 오

는 2022년까지 축구장과 수영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을 추가 건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농업인 상생플랫폼, 미생물센터, 운봉지역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현장도 방문해 사업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하며,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안에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잘 준비해서 남원발전의 대도약을 마련하는 본격적인 해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가을 여행주간 시동

남원시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이미지 브랜드를 "여백이 있는 소풍, 남원의 가을 쭉기"로 정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남원시의 이번 가을여행 주간에서는 여행자들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관광 테마를 소개할 예정으로, 대하소설 '혼불'의 무대이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인 △서도역 철길

및 민산홍엽의 절정의 색을 보여주는 △지리산 뱀사골 단풍과 하늘에서 우수수 별들이 쏟아질 듯한 △정령치에서의 바라보는 밤 하늘을 추천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4계절 이미지 브랜드를 제작해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등 계절마다 남원이 가진 생태와 문

화자원을 조화한 감성상품을 발굴, 여행자가 마음에 담고 가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 관광과 양선모 담당관은 "관광객들의 이동 추세에 기존의 단체관광 트랜드에서 힐링 위주의 개별적인 감성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태와 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는 남원품의 목적지 탐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위촉

남원 민간서비스기관·복지시설근무자 전문가 구성

남원시는 지난 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민간과 공공영역이 함께 지역복지를 만들어가는 제2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2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김근식 남원시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해 지역사회복지에 대해 의논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 소개, 위촉장 수여, 노암동 특화사업(골목놀이터)동영상 시청, 위원장 대표 선출, 건의사항 및 기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읍면동 민간위원장 대표로는 노암동 문봉근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문 대표는 앞으로 23개 읍면동협의체를 대변하고 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다.

남원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284명으로 민간서비스기관 및 복지시설 근무자, 이?통장,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사회보호체계 구축과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환주 시장은 "고독사 증가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실천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봉황인재학당, 오늘 고교 입학설명회 열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 요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임실봉황인재학당이 6일 '고등학교 입학과정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중학교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고등학교의 종류와 입학전략'을 주제로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와 중3 학생이 대상이다.

고입제도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고교 종류 및 입학전형 ▲전주 주요 특목고 및 자사고 입학전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고교 입학 경험이 풍부한 도내 주요 고등학교 진학부장 2명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청취하

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어 혼란했던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시원하게 날릴 전망이다.

양성태 사무국장은 "2022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른 고입진학을 앞 둔 학부모의 혼란과 복잡한 심경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이 준비돼 있다"며 "지역인재 양성을 넘어 학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봉황인재학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과정 설명회'는 6일 임실봉황인재학당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무실(☎643-9551)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매 아리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가을철에 산을 찾는 사람들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가을철에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의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시기별로 맞춤형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종자채취를 위한 채종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요 임도 및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산림훼손과 불법벌채 등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자연재해 피해주민

측량수수료 50% 감면

순창군은 최근 태풍 '솔리'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주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해지역의 해당 읍·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초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감하고 있다. 9월 현재까지 139건 2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감면대상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중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해당된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